

태우이 건설 신문

DAEWOO E&C
MAGAZINE
2020 5 + 6


DAEWOO E&C

www.daewooe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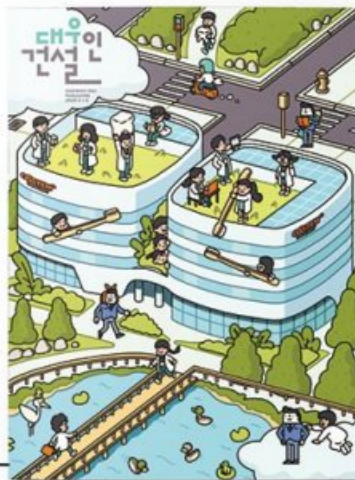
3 + 4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3+4월호 스티커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관전 푸르지도 씨앗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네요.
 5+6월호 스티커를 색칠해 알록달록한 나만의 스티커로 표지를 꾸며 주세요.
 개성이 더해진 다양한 용모작을 기대하겠습니다.



표지 스티커 이벤트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스티커를 색칠하면 더욱 멋진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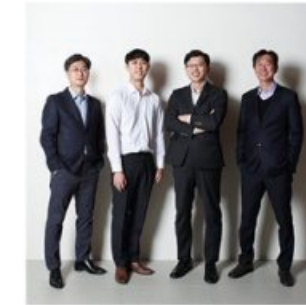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2



12



20



14



34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래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임학현
 표지 일러스트 이시누
 인쇄 금강인쇄

- 2 **THEME VIEW**
반짝반짝 - 색다른 관점과
빛나는 창의로 바라보는 세상
- 4 **THEME POLL**
그 많던 창의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
- 8 **THEME TALK**
빛나라 지식모음의 별,
나만의 아이디어노트 만들기
- 12 **THEME VISION**
파트너십이라는 황금열쇠로
글로벌시장의 문을 열다
- 14 **현장STAR그램**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
- 20 **건설SMART기술**
'하나'되어 '일'이 된다, 프리콘
- 24 **선배 톨보기**
재무관리본부 최종일 본부장
- 28 **정대우로드**
고대 문명의 시작점에서, 이라크
- 33 **WORK & LIFE**
네가 있어 다행이야, 반려동물
- 34 **취미 유발자들**
건강하고 맛있개,
댕댕이 집밥 김선생들
- 38 **주말에 뭐하지**
영화 <워호스>, <선생님과 길고양이> 외
- 42 **내용보고서**
바이러스 잡는 면역력 솔루션
- 44 **대우건설인+**
SNS '푸르지도 라이프' 구독 이벤트
대우건설, 코로나19를 부탁해
- 48 **대우건설 뉴스**
2020년 5+6월 대우건설 뉴스
- 52 **독자후기**

02

THEME VIEW

색다른 관점과
빛나는 창의로
바라보는
세상

04

THEME POLL

그 많던
창의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

08

THEME TALK

빛나라 지식
모음의 별,
나만의 아이디어
노트 만들기

12

THEME VISION

파트너십이라는
황금열쇠로
글로벌시장의
문을 열다

관점의
창의
바라보는
세상

타고나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 첨단기업의 프로젝트에서나 필요한 것.
빛나는 창의력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도 늘어갑니다.
창의력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새롭고, 유용하며, 반짝이는 것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금'도 그중 하나입니다.
근대 사람들은 금이 영혼의 성장과 불로장생의 천운을 갖게 해준다고 믿었는데요.
열을 가하거나 땅에 묻어도 변하지 않는 금에서 송고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철이나 납, 구리 등의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금술사'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약 2,000년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화학계의 큰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반복하며 알코올, 질산, 황산 등 물질의 특성을
알게 됐고 증류기와 플라스크 등 실험도구를 발명했으며 중발, 침전 등 화학실험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전과 또 다른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이번 5+6월호에서는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창의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 많던 창의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 목록에 빠지지 않는 그것, 바로 '창의'다.
회사를 넘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까지 창의력을 외친다.
우리 주변을 평생 맴돌던 그 단어, 대우건설인 100명에게
창의성에 대해 물었다.

Q1

창의성에 관련된 유명인사의 인용언 및 발언 중 가장 공감 가는 것은?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만큼, 그에 대한 유명인들의 발언도
가지각색이다. 그 중 '창의력 거장'으로 손꼽히는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한국에서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핸드폰을 덜 보고,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라. 나는 늘 주변을 관찰하며 사진을
찍고 메모하며 그것을 내 옷에 반영한다. 영감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했다.



Q2

회사에서 창의력이 가장 절실한 시기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39%

반복되는 업무에
지칠 때
37%

경쟁사 또는 동료와
비교 당할 때
12%

조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
9%



New project

그렇다면 대우건설인들이 창의력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반복되는 업무에 지칠 때'가 1, 2위로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생각의 늪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창의력이 절실하다' 등이 있었다.

Q3

창의력이 솟아라! 업무적 창의력이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은?

정 대리, 커피
한 잔 할까? 팀원과의
브레인 스토밍
30%

문제 속에 답이 있을지니,
해당 분야 공부 및 자료 검토
28%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래퍼런스 찾기
22%

생각을 나열하는 힘,
마인드맵 그리기 및 낙서
20%



Brainstorming

설문 응답자의 30%가 창의력이 필요할 때 팀원과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답했다. 브레인 스토밍은 최대한 다양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므로, 3명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한긍정'이다. 비판이나 평가는 잠시 뒤로 미뤄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Q4

창의적 결과물을 만드는 역량 중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힘,
정교성과 세밀함
37%

매번 다른 도화지를 펼치듯,
유연성과 융통성
32%

기존과 다르게! 눈에 확 띄게!
독창성과 참신함
21%

특 치면 특! 여러 아이디어를
빠르게 술술, 유창성
10%



Detail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사고영역을 크게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창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주목할 점은, '정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판, 평가, 실험 등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하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분석적인 사고력이 단연 필수다.

Q5

창의력을 돕주는 상사의 행동 중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 제공
33%

폭넓은
재량권 부여
31%

도전정신
자극 및 격려
25%

공정한
평가와 매우
11%



Knowledge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조직 내 젊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입사원들은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색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창의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뒷받침될 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젊은 직원들의 도전적인 태도에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임원들의 지혜가 어우러질 때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Q6

효율 120%!
내 창의력이 가장 샘솟는 시간은?

상쾌한 기운 가득,
오전
32%

하루를 여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길 아침
27%

홀로 고독하고
고요하게, 저녁
26%

점심밥으로
기운 충전, 오후
13%



Routine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활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집중 시간대에는 다른 일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 업무를 다루는 것이 좋다. 보고서나 기획안을 써야 한다면, 미리 사전 조사나 아이디어션을 해둔 뒤 이 집중 시간대에 실질적인 업무에 몰입하는 방식이다.

Q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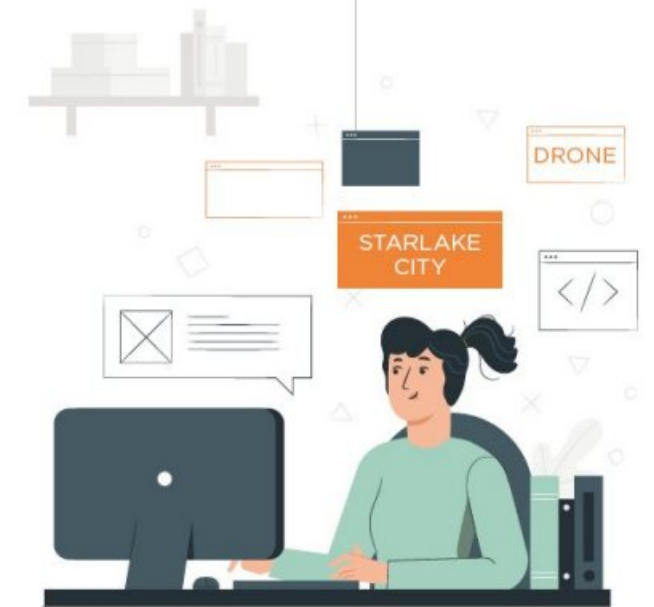
색다른 도전과 관점이 돋보이는
대우건설의 행보는?

한국형 신도시
수출사업,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32%

국내 최초 건설산업용
드론관제시스템 구축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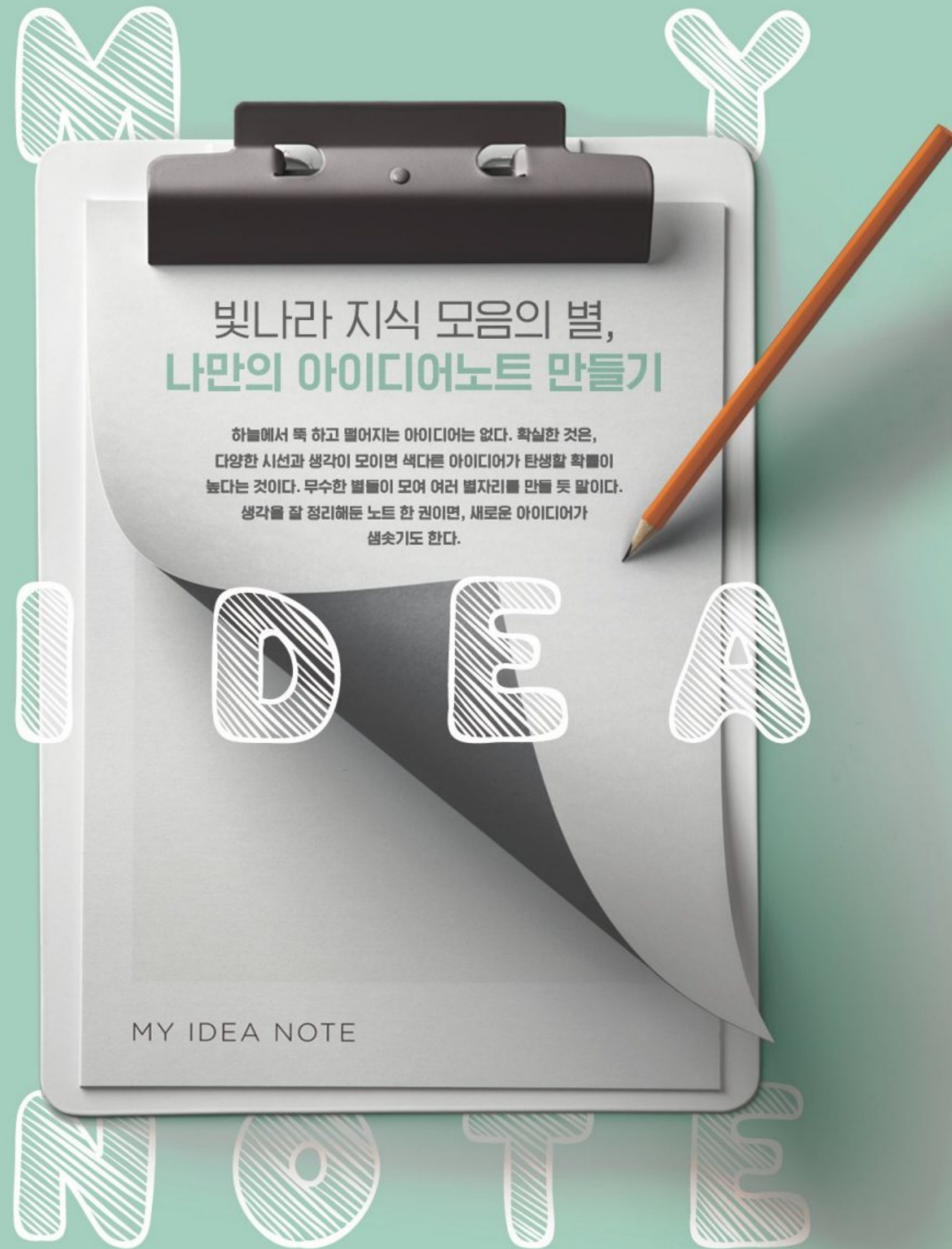
글로벌 선진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20%

브랜드 철학의 재정립,
2019 푸르지오 리뉴얼
19%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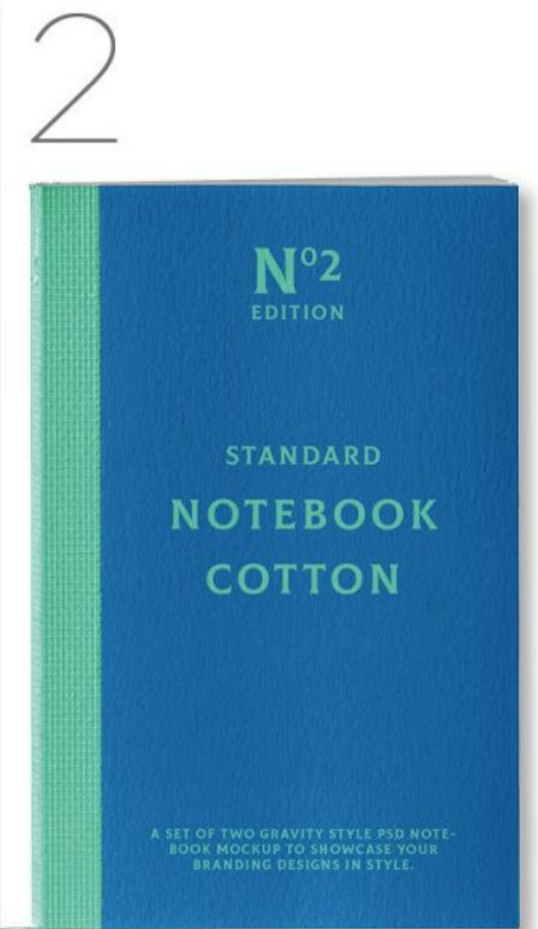
창의성이 돋보이는 대우건설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베트남스타레이크시티'와 '국내 최초 건설산업용 드론관제시스템 구축'이 차례로 1, 2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스타레이크시티'는 국내 최초 민간 주도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사업이다. 대우건설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이 베트남 대형 부동산개발 사업에 자본 투자하는 최초의 사례로 손꼽힌다.



단 한 권의 마법, 내 손안의 비법노트

창의성은 서로 다른 생각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때 피어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재료를 수집하고 이 재료들을 부딪히게 할 공간이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사람, 주말에도 업무 생각을 하느라 피곤한 이들에게 노트 작성은 더욱 유용하다. 머릿속을 말끔히 비워두기 위해 노트에 생각을 탈탈 털어둔다고 생각하면 쉽다.

“교과서 한 권에 충실했다”는 우등생의 비법처럼, 단 한 권의 노트로 시작해보자. 복잡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많은 정보를 모아 시각화할 것.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 회의록을 적는 것은 물론 중요한 메일이 있다면 인쇄하여 붙이고 받은 명함까지 전부 모아 해당 프로젝트의 ‘족보’를 만드는 것이다. 자료의 양에 따라 페이지가 추가되어야 하므로, 손쉽게 페이지 편집이 가능한 바인더 형태를 추천한다.



사실과 생각을 똑똑하게 적는 법

세미나를 듣거나 회의를 할 때도 노트를 활용하면 좋다. 들리는 것을 그대로 적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요지를 파악하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적는다. 키워드만 쓰면 그 맥락을 놓치기 쉬우므로, 완전한 문장으로 적는 것이 효과적이다.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노트에 메모해 둔다. 메모의 기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고 내 생각을 시각화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본문 글씨와는 다른 색이 좋다. 강연자나 팀원이 한 말과 자신의 생각이 잘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연이나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방금 들은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적어본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노트에 적을 것. 그 문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머릿속에 전해진다. 이때 노트의 양 펼침면을 적극 활용해보자. 사실과 생각을 정리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왼쪽 페이지는 과제나 문제에 대한 사실을, 오른쪽 페이지는 나의 생각을 적는 것으로 나눈다. '이러한 상황(A)에 놓인 클라이언트(B)가 해당 기간 내에(C) 어떠한 결과(D)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A라는 상황에서는 방법 E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나의 과거 경험 혹은 생각을 구분해 적는 것이다.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적는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에도 도움이 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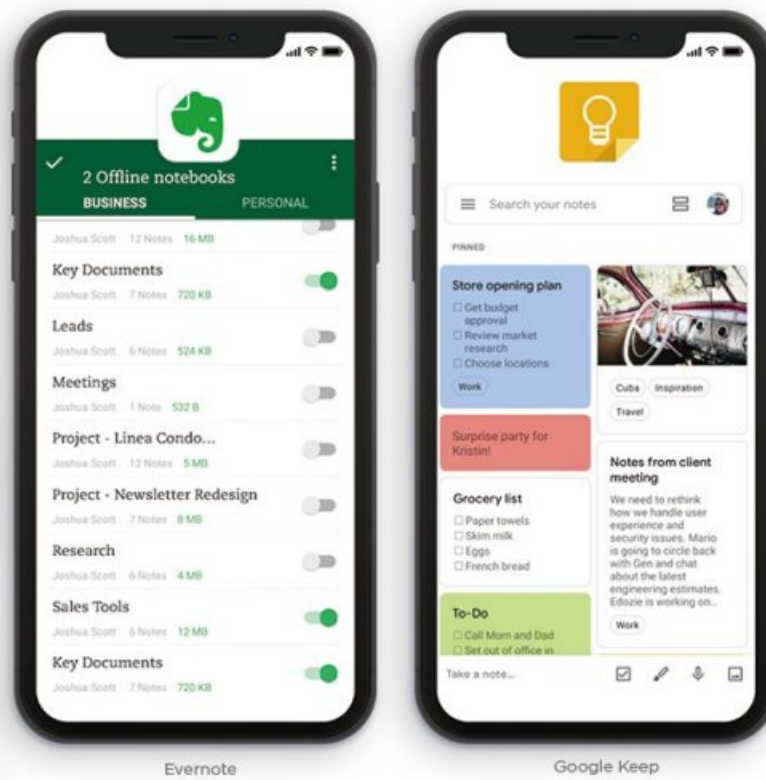


스케줄을 다스리는 자가 일의 주인이 된다

주간 및 일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생각을 정리하고 생산성을 돕는 방법이다. 한 주에 해야 할 업무를 쭉 적어두는 것부터가 주간 계획표의 시작이다. 꼭 마무리해야 하는 최우선 업무, 그 주에 달성해야 할 업무 목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구분해 적는다. 업무를 실행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업무에 필요한 진행 예상 시간도 간단히 표기할 것.

일간 계획표는 사분면으로 나누어 적는 방법을 추천한다. 중요하면서도 빨리해야 할 일, 중요하지만 차분히 시간을 들여 정리해야 할 일,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빨리 해야 할 일, 중요하지 않고 오늘 안에만 처리하면 될 일로 구분해 일을 나누어 적는다. 업무를 중요도와 처리순서에 따라 구분해두면 자동으로 하루의 스케줄이 정리될 것이다. 주간 계획표와 일간 계획표를 짜는 것은 미리 여행 스팟과 스케줄을 짜놓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계획을 대충 짜놓으면 결국 스텝이 꼬인다는 것을 기억하자.

4



정보 수집에 유용한 디지털 메모 앱

이동 중에 메모가 필요하거나,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잦다면 디지털 메모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 앱이라 PC와 스마트폰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앱을 추천한다.

에버노트(Evernote)는 가장 대중적인 디지털 메모 앱으로 꼽힌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DF나 워드 문서를 첨부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탁월하다. 에버노트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이미지 내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 손글씨로 쓴 텍스트도 인식이 가능하므로 노트를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찍어 업로드해 아카이브로 활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노트 작성 후 태그를 입력해두면 검색과 분류에도 유용하다.

구글 킵(Google Keep)은 메모의 배경 색상도 노랑, 파랑 등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 흡사 포스트잇을 쓰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문의 메모용으로는 활용하기 어렵지만, 실행이 단순하며 빠른 것이 최대의 장점.

‘고독한 야근러’를 위한 ‘SCAMPER’ 브레인 스토밍 기법



사무실을 홀로 지키며 아이디어와 싸움하는 이들에게, 브레인 스토밍의 창시자 알렉스 오스본이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추천한다. 노트 한 권과 펜 하나만 있으면 혼자라도 브레인 스토밍이 가능한 스캠퍼(SCAMPER) 기법이다. 아래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S

Substitute 대체하기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재료를 바꿔보기
“A의 재료를 B로 바꾼다면?”

Combine 결합하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하기
“A와 B를 결합하면?”,
“A와 C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C

Adapt 응용하기

다른 분야의 조건이나 성질을 현재 상황에 응용하기
“A와 비슷한 사례는 있을까?”,
“B를 흉내 낼 수 있을까?”

A

Modify 변형하기

색, 모양, 형태 등을 바꾸기
“A를 더 작게 만든다면?”,
“B의 냄새를 바꾼다면?”

N

Put to other uses 다르게 활용하기

지금과는 다른 용도로 다른 상황에 사용하기
“A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B를 개조하여 다른 장소에 사용할 수 있을까?”

P

Eliminate 제거하기

일부분을 제거하기
“A에서 B의 기능을 없앤다면?”

E

Reverse 재배열하기

생각을 뒤집기, 순서를 다르게 배열하기
“A와 관련된 상식을 뒤집는다면?”

R

파트너십이라는 황금열쇠로 글로벌시장의 문을 열다

닫혀있는 문을 두드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에 꼭 필요한 창의성이다.
해외건설 시장과의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어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해외토목사업실
직원들을 만나본다.

올해의 해외건설 시장 여건도 순탄치 않다 —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 부정적 요인은 여전히 산재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토목사업본부의 수주 행보가 올해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에서 수의계약으로 총 4건의 수주고를 올린 것이 그것인데, 이는 선제적 영업이 가져온 입찰 견적 업무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토목사업본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역량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마케팅역량 강화에 대한 세부전략은 무엇인가

— 우리 해외토목사업실에서는, 회사의 주력국가(이라크, 싱가포르 등)와 관심국가(중국, 인도네시아)에서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수주와 기술력 확대를 바탕으로 거점시장 다변화 및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토목사업 규모를 유지하고자 경쟁사업에 대해 Two-Track으로 이라크, 알제리 및 인도네시아에서 기획제안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점시장 다변화는 대우건설이 수년째

위쳐오고 있는 목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신규 시장은 홍콩이다. 홍콩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우리는 홍콩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회사 단독으로는 홍콩 내 입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홍콩에서의 입찰 및 수행 경험이 풍부한 1군 업체와 JV 협업을 통해 2019년부터 2건의 PJ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 없지만,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홍콩 JV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입찰

내용이 궁금하다 — 회사는 이미 4건의 입찰을 진행했다. San Wai 하수처리장, 홍콩국제공항 제3활주로, Fanling 우회도로 동측 A구간 및 B구간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Fanling 우회도로 동측 B구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입찰한 Fanling 우회도로 PJ는 홍콩 내 다수의 입찰과 수행 경쟁력을 가진 업체인 'Chun Wo'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Chun Wo와 해당 PJ를 진행함으로써 두 회사의 입찰 경쟁력과 영업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난 4월 29일 완료했다.

파트너십을 맺는 것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 해외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설계부터 견적, 입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과 업무 문화를 맞춰가며 업무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해본 적 없는 파트너십일수록 업무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다. 세부사항 합의 등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담당자들은 신규 파트너십 구축 및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직원의 역량이 마케팅역량 강화에 매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 — 해외사업인 만큼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단순한 영업확대가 아닌 수익성 있는 PJ 및 JV사를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발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 Chun Wo는 홍콩 건설 최고 등급을 보유한 업체다. 이 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Fanling 우회도로 동측 B구간 PJ를 포함해 2022년까지 5개의 PJ에 입찰 및 수주하는 것이 목표다.

Fanling 우회도로 공사(서측), Shatin 하수처리 터널공사, Tuen Mun 남부 MRT확장공사, Tung Chung 서부 MRT 확장공사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는 해외토목사업실에서 선정한 4대 핵심 공종인 터널, 교량, MRT 등으로, 수주 시에는 홍콩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 기대가 크다. 또 2023년 이후 대규모 매립공사 및 추가 터널공사 발주가 예상된다. Chun Wo 외에도 공종별로 경쟁력 있는 JV사를 발굴해 수주 확보 및 수익률 재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토목사업2팀
조형식 부장

해외토목사업1팀
김영규 부장

GLOBAL



해외토목사업1팀
이형기 사원

해외토목사업실
강석도 상무

PARTNERSHIP

“

해외사업인 만큼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프리콘으로 완성한
건설의 새바람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

LG, 코오롱, 롯데 등이 자리한 마곡산업단지에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식산업
혁신도시에서 각 분야의 굵직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화려한
개막이 시작된 것이다.

14,515.8 m²
대지 면적

23 month
공사 기간
18.06.01 - 20.04.30

10 지상층
2 지하층
2 동

47.55 m
최고 높이

71,003.99 m²
연면적

선진기술 서비스의 놀라운 성과

마곡지구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모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융·복합 기술의 기획, 연구 및 개발이 이뤄지는 첨단산업의 집적지다. 2020년 5월, 이곳에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가 들어서며 산업 생태계 구조를 더욱 촘촘히 할 것을 예고했다.

“프리콘(PRE-CON)이란 PJ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 설계, 원가, 공정, 품질 등을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공법입니다. 저희 현장은 프리콘 용역을 수행하고, 수주까지 이어 진행한 대우건설 최초의 프리콘 현장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짜리 연구동과 지상 10층의 사무실동을 시공한 김상엽 소장의 설명이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오스템과 프리콘 용역계약을 맺고 8개월간의 용역 끝에 이번 현장을 수주했다. 당시 프리콘 용역으로 실시설계의 80%를 완료했으며, 최초 설계도서 기준으로 공사비를 약 34%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약 3개월 이상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프리콘 용역을 수행한 게 시공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당시 BIM 시뮬레이션으로 78,000건의 간섭 사항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죠. 수차례 진행한 물량 검토로 저희 현장에서는 도급 미반영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콘 용역에서 단축한 3개월의 공사 기간보다 1개월 더 앞당기며 여유로운 준공을 맞이할 수 있었죠.” 공무를 맡은 전호섭 대리의 자부심이 전해지는 대목이다. 프리콘 용역으로 수주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 오스템임플란트중앙연구소현장이 새삼 더욱 대단해 보인다.



시공의 정교함을 통해
어금니 모양의 전면 곡선
형태를 구현했다.



지상 8층의 연구동과
10층의 사무실동, 중앙육상정원
모두 프리콘을 통해
사전 설계가 이루어졌다.

정교하고 까다롭게,
더 나은 ‘어금니’를 탄생시키다

프리콘 공법을 통해 애로사항을 미리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공사가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어금니를 모티브로 한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외벽 디자인 구현이 그에 대한 방증이다. 공사를 담당한 조철훈 과장이 당시의 난감한 상황을 떠올리며 웃음 지었다. “외벽 디자인을 구현해내기가 매우 까다로웠어요. 저희 현장의 입면은 전면 곡선 형태로, 완만한 굴곡면과 급격한 굴곡면을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완벽한 어금니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유리 패널이 시공될 굴곡면의 내측과 외측 사이지를 일일이 측정하여 커팅하고 시공하는 정교함을 발휘해야만 했다.

건물을 구성하는 바닥 시공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의 바닥 미장은 슬라브 마감이 일반적이지만, 오스템임플란트중앙연구소현장은 마감 공사 단계를 한 단계 줄여주는 ‘벤딩플레이트 공법’을 적용했다. 벤딩플레이트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 시 높이에 대한 레벨 작업 가이드용으로 벤딩플레이트를 시공하여 바닥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3m 간격의 벤딩플레이트 작업을 통해 오차범위 ±10mm 이내의 시공품질을 확보했으며, 간섭 공종인 전기 작업을 동시에 소화하며 공사기간 단축에 일조했다. 조철훈 과장이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해당 공법으로 몰탈(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설 후 바닥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단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완성된 바닥면을 보니 힘들었던 시절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시공 단계에서도 프리콘 용역을 함께 진행한 협력업체가 해당 공종의 시공을 맡게 되면서 축적된 기술 스테디를 바탕으로 품질까지 잡아내며 ‘어금니’의 내실에도 만전을 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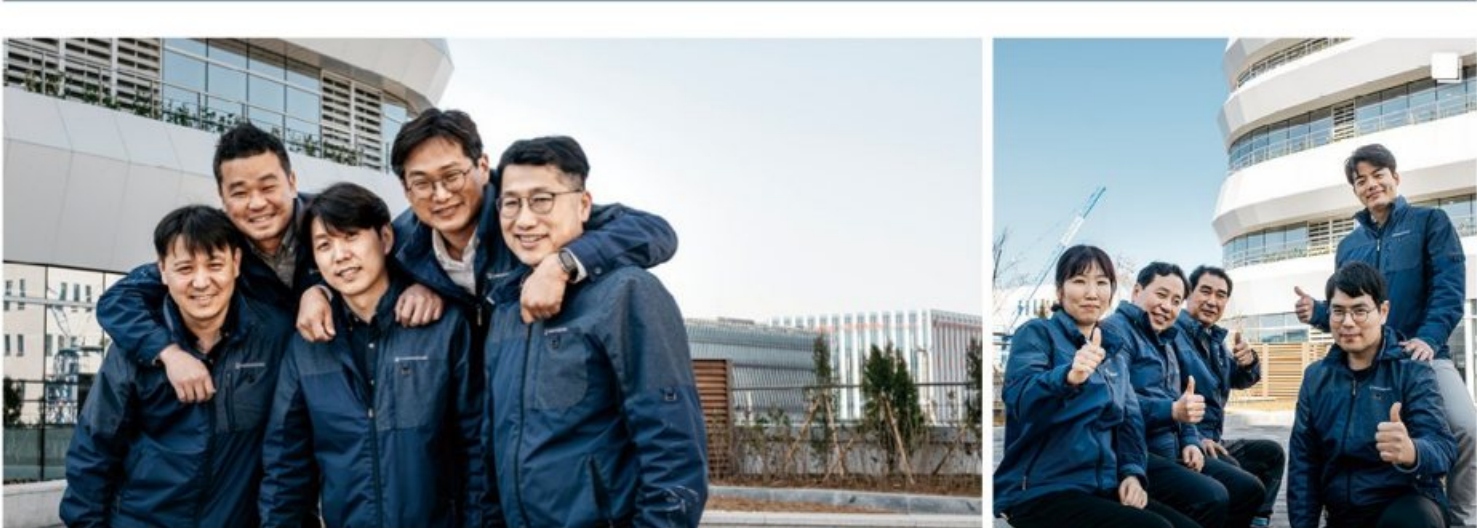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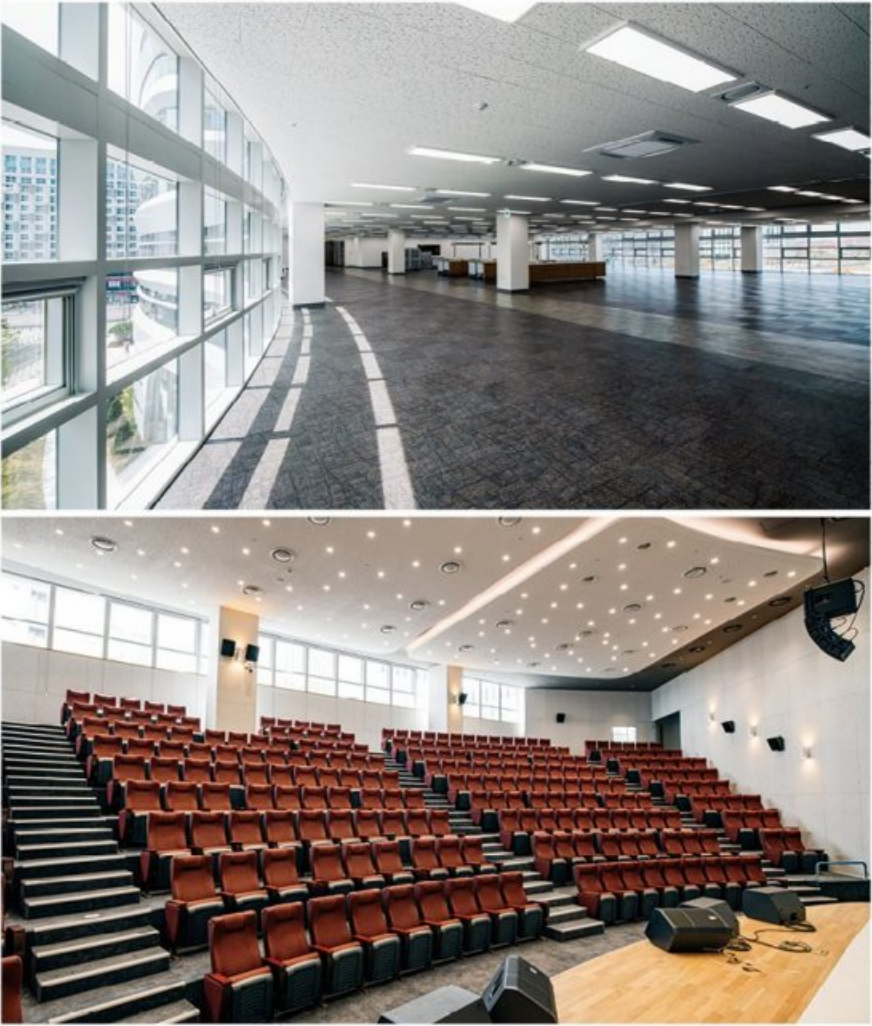
팀워크도 트렌디하게

현장의 시작이 프리콘 용역이었다면, 그 달콤한 결실을 이루게 한 것은 현장 직원들의 팀워크다. “현장을 운영하며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하관계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덕분에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일정을 완벽하게 숙지하며 현장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소통이 잘 되니 당연히 불필요한 회의가 줄고, 회의를 한다고 해도 30분을 넘는 일이 없었죠.” 항상 여러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의사 결정도 일사천리였다는 김상엽 소장이 현장을 운영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전호섭 대리가 한마디 덧붙인다. “현장 직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맡은 일은 확실히 완수한다는 규칙이 직원들 간의 신뢰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개인의 워라밸이 완벽히 지켜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어요. 직급이나 소속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 없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팀워크 모범현장으로, 다른 현장에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프리콘 서비스를 통한 첫 번째 수주 현장으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우리 직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콘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 것은 물론, 우리 직원들까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와 뿌듯합니다. 그동안 애써준 현장 직원들과 유관팀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엽 현장소장



#청춘영화_주인공처럼 #프리콘공사의_한_페이지 #공사팀

#프리콘_최고 #BIM_좋아 #관리/공무팀



#튼튼한_어금니_앞에서_한컷



#처음부터_끝까지_대우건설이_책임집니다 #안전팀



#포즈는_같아야_제맛 #기전팀

‘하나’ 되니 ‘일’이 된다, 프리콘

TFT로 운영되던 대우건설의 프리콘 조직이
정식팀으로 전환되며 프리콘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설계 및 시공,
BIM 등을 담당해온 전문인력에 민간사업
수주담당이 융화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간다.



황금알을 낳는 스마트 융합기술, 프리콘

프리콘 서비스란 착공 전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가 함께 협력해 최적의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이끌어내는 사전검토프로세스를 말한다. 대표 기술은 3D
모델링 설계기법(BIM)으로, 이를 통해 가장 알맞은 설계
공법을 찾고 적정 공기와 예산 그리고 원가절감 방안 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술집약적 방식이다.

비용과 공사기간, 위험요소를 낮추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프리콘 서비스. 이를
성공적으로 건설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대우건설의 노력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술융복합 등의 혁신으로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끈 DPR Construction에서
프리콘 기술을 이전 받은 것. 이후 자체 기술개발을 이어
오던 2019년, 프리콘 TFT가 신설됐고 올해 정식팀으로
전환되며 더 높은 성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발주·설계·시공의 ‘팀플레이’ 만드는 프리콘 팀플레이

작년 초 TFT의 첫 시작부터 팀을 이끌어온 정명호 부장은
정식팀 전환과 함께 20여 명의 팀원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직접 기술 이전을 받은 직원은 물론, 10년 동안 BIM 업무를
맡아온 직원, 현장에서 다년간 구조설계를 담당해 온 직원
등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설계,
시공, 공무 등 여러 현장 경험을 쌓아온 직원들과 베테랑
사업담당들이 합류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리콘팀과 유관부서의 협력으로 대우건설은 작년
하반기 기준 주택건축사업본부 약 30%의 신규현장에 BIM
및 Cloud 기반의 업무수행 시스템을 적용했다. 2019년도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CM) 능력 평가에서 시공책임형
부문 1위를 기록한 것 역시 돋보이는 성과다. 프리콘팀은
아파트와 오피스 등을 넘어 비주거, 비정형 건축물
프로젝트를 수주해 프리콘 서비스의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프리콘 서비스 기술들은 어떤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을까? 프리콘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형상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재료, 속성 정보를 표현한 디지털 모델을 말한다. 가상공간에 현실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인다. 건설산업에서 BIM이 대두된 것은 꽤 오래전이지만, 현장 작업자들이 2D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수많은 사례를 데이터로 표준화하는 데 많은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프리콘 서비스 적용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 프리콘팀은 지난 사례들을 데이터로 표준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공사들의 시공지침, 견적지침 등 회사의 표준을 2020년 내에 BIM 데이터로 정리해 본사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프리콘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프리콘 용역을 수주해 본 공사까지 완료한 오스템 임플란트중앙연구소현장, 표준화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데 힘쓰고 있는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현장, 프리콘을 바탕으로 토지조성, 설계, 인허가, 시공, 운영 등을 총망라할 베트남B3CC1현장 역시 BIM 사용이 돋보이는 사례다.



베트남B3CC1프리콘현장
자체 모델링 검토

LASER SCANNING & DRONE

레이저스캐닝과 드론 기술 역시 현장에 응용되는 프리콘 서비스의 일부다. 레이저스캐닝(Laser Scanning)은 대상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반사되는 값을 통해 3차원 형상정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이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주로 활용된다.

최근 오시리아테마파크상업시설프리콘현장에서는 드론(Drone)에 레이저스캐닝 장비를 장착해 토공 상황을 데이터로 스캔한 사례다. 드론을 이용하면 광범위한 범위를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 스캔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부지 내의 토사량을 추출하고, 현장 대지모델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지하 구조물을 활용해야 하는 분당지웰 푸르지오현장에서도 레이저스캐닝을 통해 시공 적합도를 높였다. 또한, CIP 수직도 변위를 측정해 보강안을 마련하거나, 골조 및 외장의 품질을 확인하는 등 스캐닝 기술의 활용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현장
데이터 검증 시현



CLOUD & AR/VR & 현장지원

클라우드(Cloud)는 데이터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개념을 말한다. BIM에도 클라우드의 개념이 적용된다. BIM 접근성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에 모델을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이다. 프리콘팀에서는 클라우드에 모델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대우건설만의 라이브러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공유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를 실시간으로 다운 받아 BIM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표준 객체들을 중앙 클라우드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프리콘팀은 사업 수주단계에서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착공 준비단계나 본 공사단계의 현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 검증된 요소기술의 적용을 통해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AR/VR 등 새로운 기술의 발 빠른 검증을 통해 회사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하남포웰시티현장 민원
시뮬레이션 분석 지원

기회는 기회 위기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재무관리본부 최종일 본부장

2020년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종일 본부장이 이끄는
재무관리본부는 '현금중심경영'을
목표로 삼고, 선제적인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전국민적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적 회계관리를 넘어 소통의 통로가 되어
한 회사의 재무는 사업의 안정성을 대외에 드러내는
지표이자, 조직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초체력이다. 더불어 직원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초적 동력에도 관련이 깊어 조직운영을 위한 중요
영역으로 손꼽힌다.

30여 년의 기간 동안 재무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최종일 본부장. 그는 회사 내 재무조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재무는 변화
하는 시장 속에서는 물론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쟁 등
특수상황에서도 회사의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 세무, 자금관리로 대변되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현장관리에 기여하고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 주체로 변해야 하죠.
또한 시장과 소통하고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해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역시
현대 재무조직의 몫입니다."

최종일 본부장이 2020년 재무관리본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바로 '현금중심경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향후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주요 산업의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진행하던 해외사업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생존을 위한 현금중심경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관리본부는 채권감축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도전의식으로 견인하는 위기극복과 성장

최 본부장은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자연스레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다고 말한다. “모든 회사에는 어려운 시기와 힘든 나날이 늘 존재합니다. 2016년 11월,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던 때가 기억나네요. 거절통보를 받은 이후 123일 동안 재무관리본부 및 전사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다시 적정의견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죠. 그때 느꼈던 희망과 자신감, 어려운 싸움을 이겨낸 우리가 힘을 모아 회사를 정진시키고 있다는 충만함이 아직 마음에 생생합니다. 제가 대우건설에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며 느낀 점은, 우리에게 50년의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온 극복의 DNA와 탄탄한 대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더 쉽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본부장은 이를 위해 후배들에게도 ‘도전의식’을 강조한다.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순탄히 흘러가는 배 위에서도 도전의식이 있다면 더 높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후배들이 재무관리를 단순한 돈 관리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명심했으면 해요. 평소에도 통통이 환율, 유가, 금리 등 경제지표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관리본부에서는 경기침체가 가져올 잠재적 재무 리스크를 막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중점관리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 해외국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국가와 프로젝트, 사업구도에 따른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모든 사업본부가 PJ를 수주하고 공사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지적자산 구축에 힘을 보태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본부 임직원들이 모두 애쓰고 있어요. 사업 전반에 걸친 재무 가이드라인 및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경영관리 지표 체계화 역시 이번 경기침체를 계기로 더욱 공고히 다듬어 갈 예정이니 전사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50년의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온 극복의 DNA와 탄탄한 대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더 쉽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1967년 6월 5일생
2013년 입사
O형

FAVORITE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입덕 포인트'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면모.

하루 일과 중 꼭 놓치지 않는 일은?

아침 신문 읽기. 경제지, 일간지, 영어신문을 모두 챙겨보려 한다.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골프채널. 그린 위의 치열함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느낀다.

결에 두고 자주 읽고 싶은 나의 '최애' 도서는?

조정래의 <아리랑>.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현재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볼거리는?

진달래. 봄의 진달래는 눈이 부실만큼 예쁘다.

PRINCIPLE

자서전 첫 페이지에 적고 싶은 말은?

From Now.
과거에 어떤 성공과 실패가 있었든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 만든다.



PRECIOUS THINGS

배우고 싶은 취미는?

나무와 허브 등 식물 공부. 은퇴 후 식물이 가득한 도서관 혹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내 눈이 가장 반짝이는 순간은?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을 가진 사원을 만났을 때.

단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시간여행. 과거에서 나의 뿌리를 만나거나 미래에서 상상도 못할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

Time Travel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시골 할머니 댁 마루에서 쏟아질 듯한 별들을 매일 바라보던 것.



고대 문명의 시작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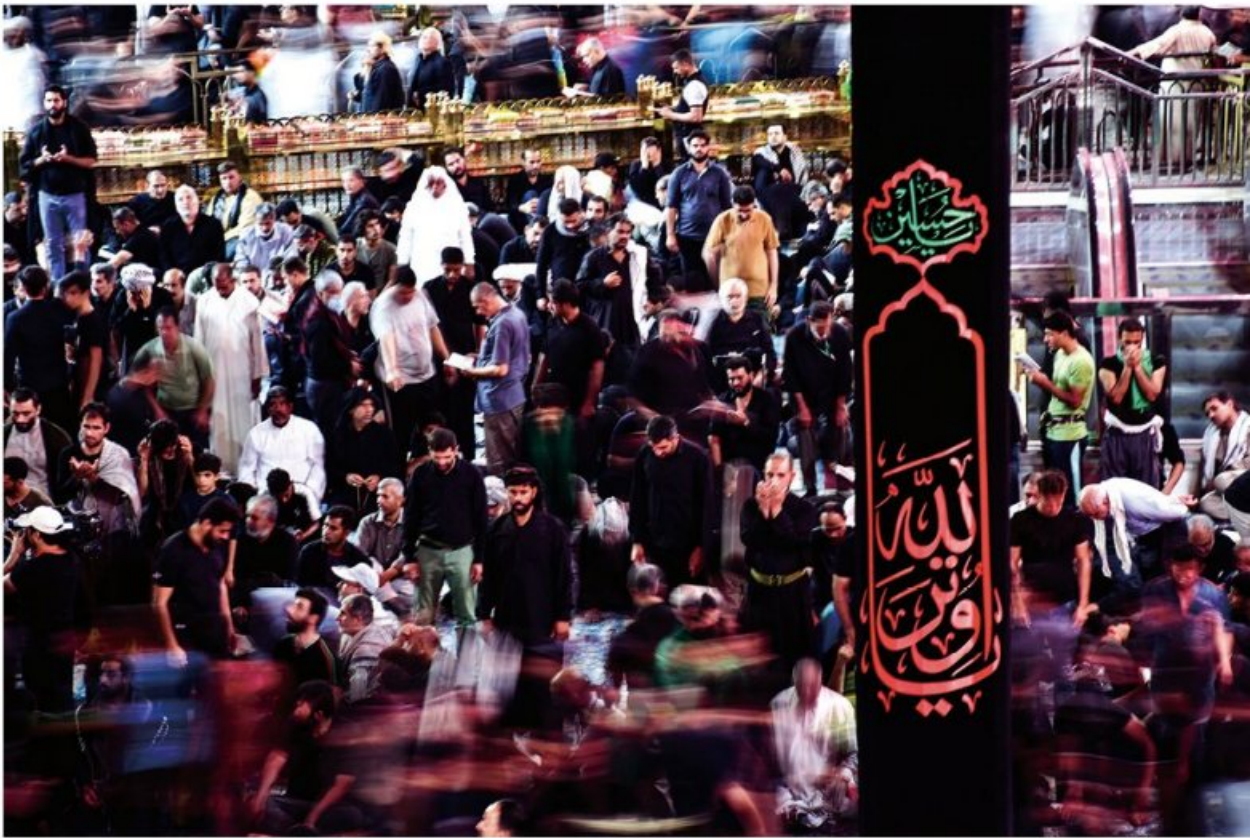
I R A Q

이라크를 설명하며 과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날 이라크 대부분의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역사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다. 지난 2019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대 유산인
고대 도시 바빌론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번 그 저명한 역사를
세계에 알렸다. 이렇듯 이라크에는 여전히 고대문명의 무수한 시작점들이 존재한다.

유적과 전통 속에 보존된
8천 년 역사의 숨결

메소포타미아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가로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 이 문명은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하천문명의 본거지인 이 땅은 8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 여러 고대국가의 흥망을 함께했다. 주변 세력에 의한 침입과 정복의 시간 역시 많았고 이 변화에 따라 민족의 교체가 극심했기에 지역의 문화는 개방적이고 또 능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시대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의 유적과 전통이 이라크에 남아있다. 북부지역 모술 근처에는 고대국가인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웨 도시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남부지역 우르에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유적이 있다.

이라크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지구라트의 흔적 역시 마찬가지다. 진흙이 바짝 마른 땅 주변에 진흙과 구운 벽돌로 지은 듯한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의 각 도시마다 존재했던 고대 건조물이다. 수메르인들이 만든 사제제도로, 연이은 폭우와 강풍으로 신들을 달래기 위한 종교의식이 치뤄졌다. 기원전 22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이라크 주요 도시마다 세워졌던 지구라트. 긴 세월 동안 대부분의 것이 무너졌지만, 우르에 위치한 지구라트는 햇빛으로 구운 벽돌 계단 원형이 남아 있어 걸어 올라가 볼 수 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의 어울림

역사가 긴 만큼 이라크에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어우러져 있다. 쿠르드, 투르코만, 아랍, 페르시아(이란), 아르메니아 등 여러 인종이 있고, 23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다만 공용어는 아랍어를 쓴다.

언어의 흐름에서도 이라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그중 아람어를 빼놓을 수 없다. 이슬람이 7세기에 이라크를 정복하기 전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후손인 아시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다. 아시리아인들을 이라크에서는 아수르라고 부르는데, 이라크 북부의 아수르문화와 이라크 중부와 남부의 바빌론 문화에서 아람어가 등장했다. 아수르와 바빌론의 방언은 오늘날 이라크 아랍어 방언 주요 어휘들의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라크에서 아람어에 뿌리를 둔 만다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 남짓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6년, 소멸될 언어 목록에 만다이어를 추가시켰다. 만다이어 사용자들은 이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만다이어 학습 자료와 발음 모음집, 사전을 만들었다. 방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만다이어 어휘 사전을 발행하는 등 학교에서 글로 배우는 문학적 아람어가 아닌 부모와 길거리에서 배우는 암미야(방언)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정치적, 종교적으로 조금 혼란스럽다. 역사를 함께해온 언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라크의 여러 그룹은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라크의 사회변화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야 할지를 배우게 한다.

WRITER



공일주
국내 대학에서 아랍어와 중동학을 가르치다가 중동 오르단 대학교에서 '한국어-실용영어 학과'의 개설을 도왔다. 이슬람, 이라크, 아랍어 관련 연구에 대한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간했다. 현재 아랍과 이슬람 연구를 진작시키는 중동아프리카 연구소의 학술세미나 개최와 저널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FROM IRAQ



이라크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이라크침매터널PJ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라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행금지국가로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일 텐데요. 사실 저희도 이라크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접한 것이 AK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보안업체 직원과 저희에게 지급된 방탄복이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무시무시하겠지만, 걱정 마세요. 이라크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저희 현장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언뜻 보면 쉽고 간단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현장에서의 '협약'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한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5월만 하더라도 당장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FEED 접수부터 설계에 금액 협상까지 현장직원, 본사 유관팀 모두가 투입되어 10월에서야 계약체결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서명식에 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는데, 덕분에 이라크 내 토목 현장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지금 봐도 가슴 뭉클하면서 흐뭇해지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저희 현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금조치로 외부인 출입이 중단된 상태고요. 현장 내부에서도 단체 교육이나 회식 등 다수의 인원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상황을 금지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출입인원 발열체크, 주기적인 사무실 세정 등 현장 곳곳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글로벌 CSR활동의 일환으로 이라크 바스라 의대에 COVID 19 관련 의료용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현장뿐 아니라 이라크 사회 전반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 역시 대우건설인답죠?



대우건설의 이라크 현장직원 단체 기념사진
(침매터널, 컨테이너터미널, 일포방파제, 일포 접속도로 등)

이라크침매터널PJ현장

회사는 이라크에서 걸프해협 최대 규모의 신항만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라크침매터널PJ현장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침매터널을 시공 중이다.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제작한 126m 길이의 합체를 최고 수심 약 16m의 해저로 가라앉혀 연결하는 공법으로, 약 2km의 터널로 건설될 계획이다. 현재는 콘크리트 합체 제작을 위한 제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매터널 본선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터널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침매터널이 완공되는 2024년에는 이라크 바다를 횡단하는 터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RAQ TMI



이슬람의 가르침을 상기하는 금욕기간 라마단.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식사나 흡연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해가 지고 나면 오히려 평소보다 많이 먹고 즐긴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바그다드는 테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설경호업체를 대동한 중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업체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니, 외국인을 상대로 테러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셈인지도?



이라크 사람들은 대화 자체를 즐기고 좋아한다. 식민지의 영향 때문인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다는 사실.

WORK
& LIFE



네가 있어
다행이야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서로에게 포근한 가족이 되어주는 반려동물과 반려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에 나선 직원의 이야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문화생활 넷을 소개한다.



“

사람이 먹는 재료 중
강아지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만드실 때도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인지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



망고(8살) × 김지원 대리



비양코(4개월) × 김현철 대리

건강하고 맛있개, 땡땡이 집밥 김선생들

기계설계팀 × 석유화학사업팀
김지원 대리 김현철 대리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내 반려인 1,500만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 이러한 기초를 증명이라도 하듯
경력 8년 차의 전문 반려인 기계설계팀 김지원
대리와 반려인 대열에 이제 막 합류한 석유화학
사업팀 김현철 대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앞에 섰다.

반려견을 위한 ‘요리의 세계’

우리나라 세 집 걸러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함께 사는 동물’을 넘어
‘사람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가족’이 된 지
오래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반려동물 육아를 뜻하는 ‘퍼터니티 리브(fur-
ternity leave)’,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인
‘펫코노미(petconom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수제
간식이 각광받고 있는 현실 또한 당연한
결과다.

“다정한 존재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말처럼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김지원
대리와 김현철 대리가 한 쿠킹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다.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맛있고 건강한 수제 간식을 만들기
위한 것.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 간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날만큼 반려견들에게 인기
만점인 ‘소고기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오늘 피자 만들기에 들어갈 식재료는
사람이 먹는 재료 중 강아지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만,
간을 하지 않을 거라 맛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만드실 때도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인지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쿠킹에 앞서 간단한 재료
설명과 주의사항을 듣는 두 김 대리의 눈빛이
날카롭다.



쌀가루 송송, 계란 탁

피자의 밑바탕이 되는 도우반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다. 밀가루 섞이는 강아지들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달걀과 물로 반죽을 한다.

“초등학생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 감촉 같아요. 조물조물 하다 보니 이상하게 기본 좋네요.” 피자 가게 일바 경험 6개월 차에 빛나는 김지원 대리의 손길이 능숙하다. 가루날림 없는 반죽에 밑대로 사방을 밀어내 정확한 원형을 만들어낸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반죽 갈라짐 현상이 불가피하지만, 김지원 대리의 손놀림에 도우가 매끈한 원형으로 탄생했다. 반죽의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달걀을 적절히 사용한 덕분이다. 반죽이 완성되면, 영분이 거의 없는 아기 치즈를 얹게 잘라 도우 가장자리를 말아 치즈 크러스트 모양을 잡아준다.

요리 좀 한다는 남자, 김현철 대리가 순식간에 모양을 잡아 으쓱하며 들어 보인다. “치즈를 넣고 나니 도우 가장자리에 갈라진 부분들이 사라졌네요?(웃음) 여기에 토핑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말 제가 먹고 싶을 만큼 맛있어 보이겠어요.”

“망고는 가리는 음식 없이 뭐든 다 잘 먹어요. 분명히 피자도 폭풍흡입 할 거라 예상합니다.”



취향이 맞는 반려견, 취향에 맞춘 토핑

예열된 오븐에 도우를 넣고 한 번 굽는 동안, 피자 토핑으로 사용될 재료를 손질한다.

“모양은 슬라이스나 깍둑썰기 등 각자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입이 작은 강아지의 경우 조금 작게, 입이 큰 강아지면 등성등성 썰어도 괜찮겠지요.” 클래스 강사의 설명 끝에 두 김 대리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내 칼질을 시작한다.

“저희 비양코는 이제 4개월 된 비송 프리제예요. 너무 조그마해서 만지면 아플까 조심스러웠던 상태를 갓 벗어났거든요. 입이 작아서 재료도 잘게 손질하고 피자도 아주 작게 잘라줘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도 많은데 설마 피자를 무서워하진 않겠죠?” 김현철 대리는 자신이 만든 피자를 비양코가 먹는 생각에 흐뭇한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거침없이 칼질을 하던 김지원 대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망고는 가리는 음식 없이 뭐든 다 잘 먹어요. 분명히 피자도 폭풍흡입 할 거라 예상합니다.” 보스턴 테리어인 망고는 김지원 대리가 입사하던 2013년부터 8년째 함께해 오고 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버섯 등 반려견 취향을 고려해 넣을 것과 뺄 것을 구분해 프라이팬에 오일 향을 입히듯 살짝 구워준다. 그 사이 1차로 구워진 도우 위에 구워진 토핑을 얹고 고구마 무스를 올려 반려견을 위한 수제 간식을 완성했다. 소금간은 안되었지만, 쿡킹 스튜디오 안에 가득 퍼지는 피자 향만은 일품이다.



김지원-망고 커풀이 맺어준 김현철-비양코 커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땀방울 흘려가며 오늘의 요리를 함께 진행한 김지원 대리와 김현철 대리. 2013년 입사동기로 만나 ‘바른생활맨’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엮이던 이들이지만, 사실 두 사람의 우정은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됐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중학교 1년 선후배 관계에서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또 입사동기까지.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했지만 취향이 ‘찰떡’이라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제가 망고를 데려온 곳에서 현철이도 비양코를 데려왔고요. 조그마한 비양코를 보고 당황하던 현철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실제로 김현철 대리가 반려인 생활을 시작한 것에는 김지원 대리의 역할이 컸다. “옆에서 지원이 형과 망고를 지켜보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진 것 같아요. 아내의 반대로 비양코를 데려오기까지 딱 3년 걸렸어요.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아내가 비양코를 더 챙겨요.” 초보 반려인이지만 지원 대리의 도움 덕분에 수월하게 적응기를 거쳤다는 김현철 대리.

활발한 성격의 반려견을 둔 덕에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날만을 고대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상상하며, 간식에 기뻐할 아이들을 기대하며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나섰다. 정성껏 만든 피자 한 박스를 손에 꼭 쥐고.

강아지 간식 만들기 TIP

영분은 최소함으로
수제 간식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다. 감자, 채소 등을 잘게 다져 끓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아기의 이유식을 만들 듯 영분을 최소화할 것. 사람은 맘이나 소변을 통해 영분을 내보내지만, 개는 오직 발바닥에 있는 땀샘으로만 영분 배출이 가능하다.

무염 치즈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개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못한다. 치즈를 만들 때는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도록 한다. 우유를 냄비에 넣고 중불로 끓인다 식초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넣으며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우유가 순두부처럼 덩어리지면 면 보자기에 걸인 우유를 부어 걸러낸다. 냉장고에 넣고 굳이면 치즈가 완성된다.



너의 리듬으로 삶을 걸어간다는 것

Movie

지난 4월 개봉해 애묘인들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고 있는 작품이 있다. 영화 <선생님과 길고양이>는 제목 그대로 아내와 사별 후 슬픔에 빠진 교장 선생님과 어느 날 그를 찾아온 길고양이가 주인공이다. 늘 같은 빵을 사서 아내의 제단에 올리고, 소일거리로 사진을 찍거나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는 게 전부인 선생의 조용한 일상, 명랑한 고양이 한 마리의 등장으로 뒤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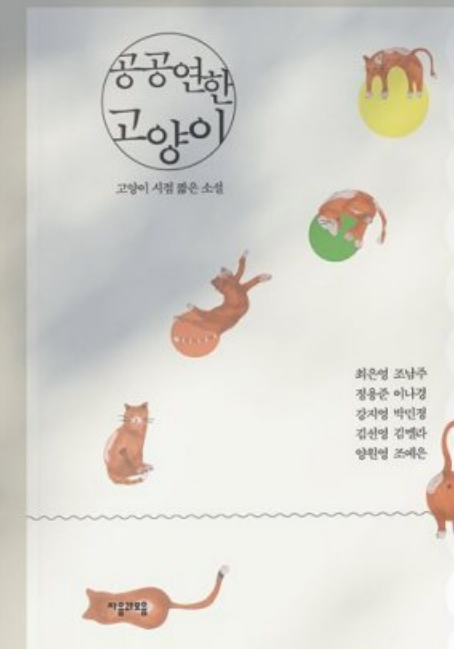
이야기의 변곡점은 고양이가 사라지면서부터다. 찾김에 고양이를 찾아 버렸지만 내심 마음에 걸렸던 그는 고양이 실종 소식을 듣고 마음 사람들과 합심해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을 통해 동네에서 '까칠남', '고집쟁이 엄강'으로 불리던 주인공은 이웃 주민들과 유대를 쌓아가고, 마음속으로 조금씩 아내와의 이별을 준비하게 된다. 길고양이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면서 그의 닫혀 있던 세계가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이다.

고양이를 매개로 마음을 여는 이는 선생만이 아니다.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고양이를 아끼는 문방구점 사장, 왕따를 당하는 여고생, 졸업 후에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20대, 늘 혼자 노는 보육원 아이 등 등장인물들은 고양이로부터 따스한 위로를 얻는다. 영화 속에는 “고양이가 싫으면 인생의 즐거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영화가 끝날 때쯤 관객들은 알아챈다. 사람이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사람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애묘인 추천 냥큐멘터리

실제 길고양이의 삶을 가까이에서 고찰한 다큐멘터리, 일명 '냥큐멘터리' 2편을 소개한다. 먼저 터키의 길고양이들과 만나는 <고양이 케다>는 길고양이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개발의 풍광 등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한국 냥큐멘터리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20만에 육박하는 국내 길고양이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본다. 영화의 시선은 국경을 넘어 일본과 대만의 사례로 뻗어 나가면서 길고양이와 인간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탐색한다. 물론 두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귀엽기 그지없는 고양이들을 보는 것만으로 러닝타임이 내내 힐링 타임이다.



너의 이야기, 아니 이젠 우리의 이야기

Book

서점가에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집이 속속 출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큰 공감과 울림을 전한다.

<다들 아닌 사랑과 자유>는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다양한 후원 방식 중 하나인 '일대일 결연'을 알리고, 결연 대상 동물들이 지내게 될 카라 더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기획된 책이다. 동물과 함께 살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유기와 학대로부터 구조된 동물들의 삶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아홉 명의 작가-김하나, 이슬아, 김금희, 최은영, 백수린, 백세희, 이석원, 임진아, 김동영-가 모두 직접 일대일 결연을 맺어 후원자가 되었고, 동물에 대한 깊은 시선과 아름다운 기억을 글로 담아 힘을 모았다.

<공공연한 고양이>는 고양이에 관한 열 편의 짧은 소설을 모은 작품집이다.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의 최은영 작가,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 <안드로이드여도 괜찮아>의 양원영 작가를 비롯해 고양이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정용준, 이나경, 김지영, 박민정, 김선영, 김멜라, 조예은 작가가 고양이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정하고 따스하게 그려내고 있다.

<왜 자꾸 나만 따라와>는 십 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에 관한 일곱 편의 짧은 이야기를 모은 소설집이다. 최영희, 이희영, 이승현, 최양선, 김학찬, 김선희, 한정영 등 일곱 작가가 들려주는 반려동물 이야기는 개, 고양이부터 거북이, 새 나이가 상상 속의 동물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진다. 또 반려동물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면을 보여 주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이야기한다. 반려동물 이야기는 십 대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너의 의미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영화와 책을 통해 그 의미를
찬찬히 곱씹어보고, 반려동물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들도 둘러보자.



네 눈은 검고도 맑구나

2012년 개봉한 영화 <워호스>는 1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소년 알버트와 그의 말 조이가 전쟁으로 헤어졌다 다시 재회하기까지의 대장정을 고전 영화의 기법으로 표현해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하나인 마이클 모퍼건의 동명 소설(1982년)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 및 제작까지 맡아 더욱 주목받았다. 특수효과는 최소한으로 사용해 사실성을 높이고 배우들은 물론 동물의 연기까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벅찬 감동을 이끌어낸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쟁 영화들과 달리, 당시 기마대 군마로 차출된 말 조이의 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동물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 고통을 극대화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정을 버팀목 삼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촬영을 위해 100마리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마구간을 짓는 등, 15년 넘게 말을 직접 키워 온 스티븐버그 감독이 말의 본질과 순수한 감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애쓴 제작 과정이 더해져 더욱 돋보이는 동물영화다. 아카데미 음악상 5회 수상에 빛나는 존 윌리엄스의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1930~40년대 고전 할리우드 영화와 거장들에 대한 스티븐버그를 경의를 느낄 수 있다.



너와 함께 가고 싶다

펫팸족에게는 공통의 고민거리가 있다.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마음 놓고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최근 펫팸족 인구가 늘면서 '펫 프렌들리'를 공언하는 공간이 늘고 있다. 손님맞이에 까다로운 호텔업계도 반려견에게 문을 활짝 여는 추세다.

'펫캉스'를 즐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펫 프렌들리 호텔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레스케이프 호텔이다. 오픈 초기부터 9층 전체를 펫 플러어로 지정하고 반려견이 묵을 수 있는 14개 객실을 별도 운영 중이다. 카펫 대신 마룻바닥을 깔고, 객실 내에 반려견 하우스와 식기, 목줄 등 다양한 펫 제품을 비치하는 등 반려동물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다. 6층 중식당 팔레드신에서는 호텔업계 최초로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팔레드신 펫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명품 펫 유모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인 조공의 '한방 보양 삼계탕전'을 별도 제공한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패키지 '오 마이 펫'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반려동물 전용 침대, 베개, 식탁, 건조기 등이 마련된 방에서 숙박하고, 간식과 장난감, 배변 봉투 등도 받을 수 있다. 객실 요금의 일부는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된다고 한다.

강릉의 인기 호텔 세인트존스호텔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묵을 수 있는 객실 펫룸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 전용 어메니티(놀이 맞춤 전용 침대 및 방석, 전용 수건, 배변판 및 배변 봉투, 삼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히노끼탕, 반려견 드라이룸, 반려견 목줄을 무료 대여해준다. 오션타워 1층에 위치한 도그 파크에서는 반려견들이 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다.



© 레스케이프 호텔

‘슬기로운 집콕’ 속 건강의 적신호

지난 1월,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후, 전국민적 ‘집콕 라이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부 활동과 운동량이 줄어들면 신체 면역력도 자연히 약해지기 마련이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영양소인 비타민D는 맨피부로 햇빛을 받아야 합성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인 대부분은 비타민D 결핍 수준(2018 국민영양조사 기준 약 90%)인데, 한동안 외부 활동이 불가해지며 비타민D의 부족으로 면역력이 더 약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전반적인 세포 기능과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 운동량이 모자라면 몸의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지는데, 실제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세포가 덜 활발해져 병원균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신체 면역력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바이러스 잡는 면역력 솔루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며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럴 때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다.
글 김수진(헬스조선 기자)

햇빛과 단백질 좋아요, 담배 싫어요

먼저 집 안에서는 유리창을 열고,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다. 비타민D 합성은 직접 햇빛을 받는 것이 관건이므로 창문을 닫으면 안 된다. 게다가 자외선B는 비타민D 합성에 필수적인데, 투과력이 낮아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한다. 담배는 가능한 끊는다. 바이러스 감염은 개인 면역력에 좌우되는데, 흡연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이나 타르,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인터루킨’ 분비가 늘어난다. 인터루킨은 백혈구 같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염증 발생과 관련 있다. 또한, 담배를 피면 항체 생산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줄어든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증거다. 폐 면역세포(폐포대식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자. 잠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록 한다. 수면 중에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백혈구인 ‘T세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식사는 제철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긴다. 제철 채소는 하루 1접시 이상(큰 접시 기준), 색은 되도록 다양하게 먹는다. 단백질은 고기 외에도 생선, 오징어 등으로도 섭취 가능하다.

SELF TEST 내 면역력, 문제 있을까?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수 있으니 생활습관에 신경 쓴다.

1. 입술이나 입안에 염증, 물집이 자주만 생긴다.
2. 잠을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
3. 최근 부쩍 예민하고, 우울하며, 무기력하다.
4. 단 음식만 자주 찾는다.

확인해봐요, 나도 ‘코로나 블루’?

만약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하고 우울해지며, 좌절감이 든다면 정신건강 적신호인 ‘코로나 블루’가 아닌지 의심해볼 것.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관련, 죽음과 관련한 공포를 장기간 경험하거나 외부 활동 제한으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계가 불필요하게 활성화되어 생긴다. 참고로 코로나 블루는 평소 외로움을 잘 느끼거나 타인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 코로나 정보를 과하게 많이 접하는 사람에게 더 잘 생긴다는 게 정신건강전문가들의 말이다. 마음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울, 불안 증상이 가끔 나타나거나, 일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다. 다음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안한 코로나 블루 극복 생활수칙이다.

1.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신뢰성 높은 것만, 하루 30분 이내로 본다.
2. 하루 2번 명상, 스트레칭, 복식 호흡 등으로 몸을 이완한다.
3. 하루 1번 1시간 이상 산책한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4. 6시간 이상 폭 자고,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섭취한다.
5. 가족 간 잔소리나 간섭을 피한다.
6.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전염질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만약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우울함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증상이 2주일 이상 지속되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다.

SELF TEST 코로나 블루 우울증 자가 진단

항목을 읽고,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표시한 뒤 숫자를 더한다. 10점 이상이면 심한 코로나 블루를 의심할 것.

	증상	없음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0	1	2	3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0	1	2	3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0	1	2	3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0	1	2	3
5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0	1	2	3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0	1	2	3
7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0	1	2	3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	1	2	3

소개합니다 SNS '푸르지오 라이프'

지난해,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철학 'The Natural Nobility,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을 발표하고 다시 새롭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페이스북과 지난해 새롭게 론칭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진행 중이다.

유튜브
올 4월 개설 1주년을 맞은 영상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 유튜브 채널은 현재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푸르지오의 분양 단지 및 현장 소개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새집을 만나다 :
분양 단지 소개
광명 푸르지오 센트레르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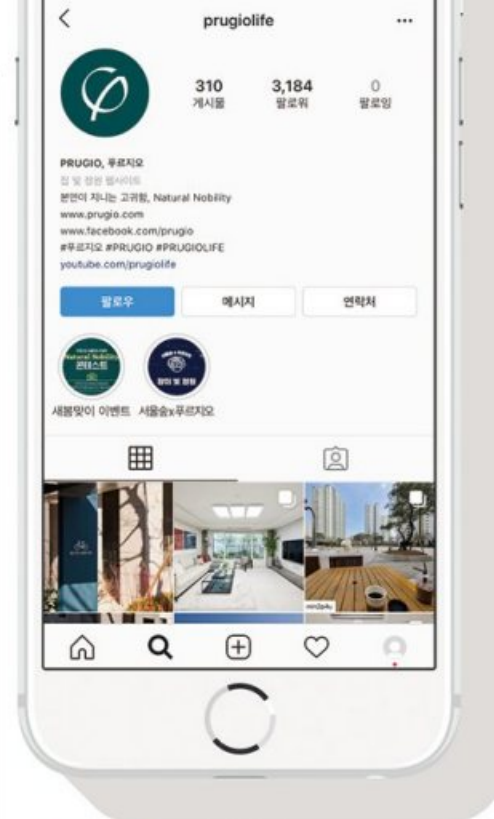
전문가를 만나다 :
부동산, 세무 상식 등을
전문가를 통해 소개
전세보증보험 대상과 신청방법



내 집을 만나다 :
입주 단지 소개
과천 푸르지오 씨앗 둘러보기



일상을 만나다 :
청소, 요리 등 푸르지오
건본주택에서 촬영한 브이로그
푸르지오 일상 V-log(마음이
편안해지는 수건 개는 법)



인스타그램
작년 8월 오픈한 '푸르지오 라이프' 인스타그램 채널은 다채로운 푸르지오 단지 전경과 인테리어는 물론 푸르지오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입주인들의 일상을 공식 계정에 리그램하여 콘텐츠로 활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푸르지오에 입주 중인 고객과의 소통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lucysoyul
#집스타그램
#LiveyourLife
#일상속푸르지오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소통
#아파트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집살인테리어
#물류인테리어

참여하세요 푸르지오 SNS 구독 이벤트

푸르지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셉조셉 도마와 골드 커트리리 등
생활 속 가치를 더해줄 선물을 준비했다.



기간
5월 25일(월) ~ 6월 5일(금)

대상
<대우건설인+> 구독자

당첨자 발표
<대우건설인+> 7+8월호 '대우건설인+' 칼럼

참여 방법
step 1 - 푸르지오 유튜브 채널 '푸르지오 라이프' 구독하기
step 2 - 푸르지오 인스타그램 @prugiolife 팔로우하기
step 3 - ①유튜브 구독 인증샷과 ②본인 인스타그램 ID 메일 발송
보내실 곳 :
jungdaewoo@daewooenc.com

경품
푸르지오 x 조셉조셉 도마 5명
푸르지오 골드 커트리리 10명
푸르지오 블록보틀 20명

유의사항
1.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모두 팔로우해야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벤트 종료 전 팔로우 취소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경품 추첨은 랜덤으로 진행됩니다.

대우건설, 코로나19를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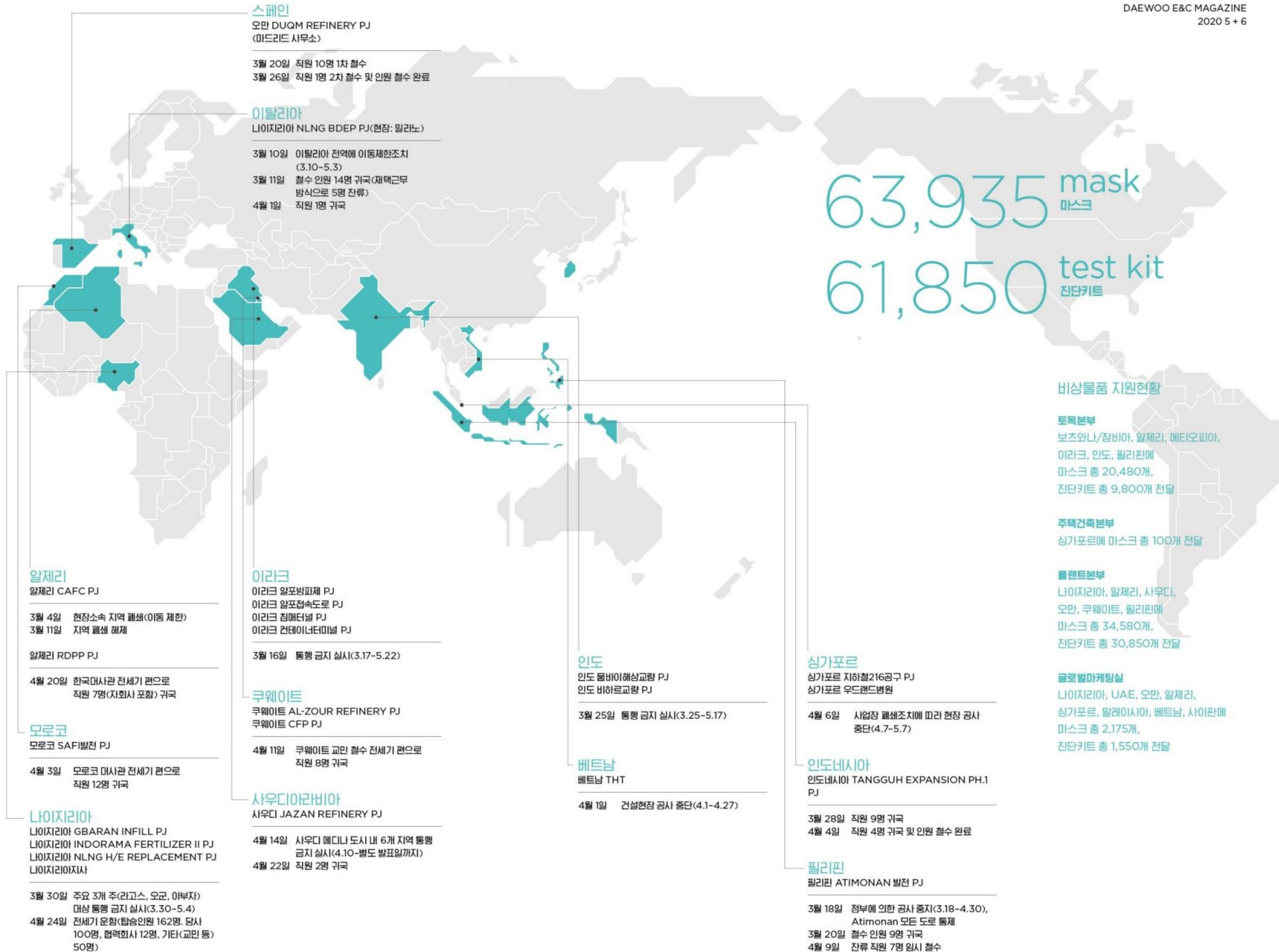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는 총 360만 명, 사망자만도 25만 명을 넘어섰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및 검역 강화, 항공기 운항 제한 및 중단 등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하늘길마저 막혀버린 상황. 대우건설이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25일, 회사는 안전보건 지침에 의거해 회사 내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장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사업장별로 자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 현장에서는 해당 국가 및 인근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사이트 내 전 인원에게 대한 일일 발열 체크 및 기록 관리를 실시한다.
3. 안전조치나 체조 등의 집체식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 간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4. 현장, 사무실, 화장실, 숙소 등의 위생 관리 및 방역을 최소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5. 개인 컵 및 개인 식기 사용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한다.

발표된 가이드라인 외에 회사에서는 현장 내에서의 감염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및 면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심 및 확진환자 판정을 위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키트는 고가의 진단장비가 필요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방식 대신, 혈액 샘플을 이용한 항원항체 방식의 진단키트를 제공해 각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2020년 5월 11일 기준





인도네시아 LNG 액화플랜트 시장 진출

지난 4월 22일, 회사는 인도네시아 Tangguh Expansion Ph2 공사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빈투니만 지역 내에 위치한 Tangguh LNG Train 3 액화 플랜트 공사 중, Cold Section 천연가스를 액화 형태로 변환시키는 핵심 공정의 고난도 배관공사다. 회사는 이번 공사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 시장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분당사업소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 수주

지난 4월 29일, 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분당사업소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2단계)를 수주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21.226km의 열배관 2열 및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42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타르 이링도로 개통

카타르E-RING도로현장의 Junction3 New Loop Bridge가 개통됐다. 이번 New Loop Bridge의 개통으로 신호 통제 없이 지하차도 통행이 가능해졌으며, 카타르의 주요 도로들과의 도로 통행이 용이해졌다. 카타르 최초의 입체교차로인 Junction3는 지하 1층, 지상, 교량 등을 통해 총 3개 층에 이르는 3Level 입체교차로로, 고난이도 교차로 시공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을 널리 알렸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현장 준공

지난 4월 27일,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현장이 하남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일대에 위치한 이번 현장은 지하 2층-지상 22층, 7개동 아파트 총 4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알포방파제 세계 최장 방파제 기록

지난 4월 2일, 이라크 알포(Al-faw) 방파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파제로 기록됐다. 알포방파제는 이라크 바스라주 알포(Al-Faw) 지역에 진행 중인 신항만사업의 일환으로, 총 연장 15.82km 중 14.523km의 메인 방파제가 세계 최장의 방파제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회사는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았으며, 대규모 투자가 기대되는 이라크에서의 추가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에티오피아고속도로현장 도로공사 사장 표창

에티오피아고속도로현장이 한국도로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에티오피아고속도로현장의 도로분야 해외진출의 중요성 인식과 한국도로공사 업무 협조 및 해외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본상을 수여했다. 현장은 에티오피아 중부 Oriomia 주에 총 37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설계 및 시공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INDORAMA FERTILIZERII현장

무재해 1,000만 시간 달성

나이지리아 INDORAMA FERTILIZERII현장이 무재해 1,000만 시간을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그룹인 인도라마 사의 나이지리아 자회사인 IECL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나이지리아 포트코트 지역의 엘레메 석유화학단지내 암모니아 2,300톤/일, 요소 4,000톤/일을 생산하는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트릴리언트 반포 설계안 공개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의 브랜드인 트릴리언트 반포 (TRILLIANT BANPO)의 설계안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다이아몬드 결정체에서 착안해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강남의 중심에서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빛나고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선보인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차세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삼성전자와 차세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App과 음성인식을 통해 세대 내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시나리오 모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차세대 스마트홈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분양하는 푸르지오 단지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아스트로엑스 투자 결정

지난 3월 23일, 회사는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아스트로엑스에 지분 30%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드론 제조사인 아스트로엑스는 13개국에 딜러망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회사는 동반성장 및 신성장 동력 발굴로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아갈 예정이다.



통합법인 설립

지난 3월 19일, 회사는 푸르지오서비스(주), 대우에스티, 대우파워 등 자회사 3사를 합병하여 통합법인을 설립했다. 자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사업을 위한 이번 합병으로, 통합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운영, MRO사업, 스마트홈, 시설물O&M, 강교 및 철골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실시간 동바리 붕괴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회사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실시간 동바리 붕괴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단순히 붕괴위험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동바리 상태를 정상, 주의, 위험, 붕괴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회사는 향후 취약 공종이 포함된 전 현장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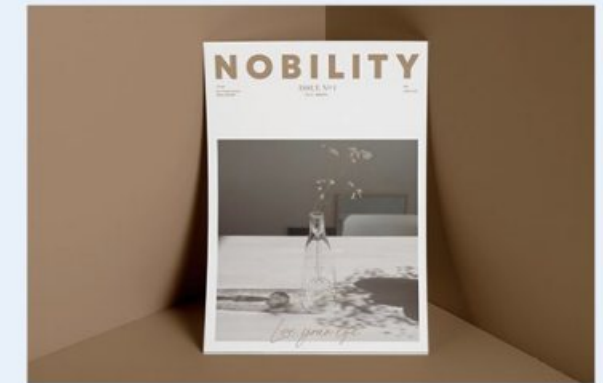
재건축 리츠사업 추진

회사는 지난해 12월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AMC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리츠는 일반인도 재건축 사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분양가 규제에 자유롭고 운영 기간 중 발행하는 수익과 운영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회사는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유해바이러스 차단 공기청정시스템 개발

회사는 'DW 환기 유니트'를 개발해 회사의 공기 질 개선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air System)에 적용할 방침이다. DW 환기 유니트는 바이러스가 제거된 안심 공기를 제공하고 제습기능과 보조 냉방으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회사는 DW 환기 유니트 기술을 특허 출원 진행 중에 있다.



푸르지오 브랜드 매거진 발행

회사는 지난 4월 26일, 회사 홍보를 통한 기업 신뢰도 및 푸르지오 브랜드 선호도 제고를 위한 푸르지오 브랜드 매거진 <NOBILITY>를 발간했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을 배포 대상으로 한 <NOBILITY>에는 푸르지오의 안목을 담은 리빙&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및 푸르지오 소식 등이 소개됐다.

1등 전통 마사지건



정지영(해외기술팀 중요한 차장)
잠비아를 소개하는 '정대우로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토목기술팀에서 근무하는 신랑이 파견나간 현장이라 기사가 반가웠어요. 예전에 보내준 사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보츠와나, 잠비아 두 나라가 멋진 교량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단거리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이 다리로 두 나라 간 물류도 활성화될 거라고 하니 더 뿌듯하네요. 잠비아와 콩고를 연결하는 공사 발주 언급도 있었다니 대우 건설의 기술력이 자랑스럽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아프리카 발전에 대우건설이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등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커뮤니케이션팀 박준형 대리
'현장STAR그램'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푸르지오 씨밋은 회사가 만드는 최상위 주거브랜드로, 강남 등지에서 푸르지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지만 막상 현장을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 칼럼을 통해 직접 그 결과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잘 꾸며진 조경이나 수영장 등이 대우건설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해외건축사업2팀 박지호 차장
'Theme poll'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조직에서 무게감과 딱딱함을 구분하는 것, '나는 과연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직 경영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자 하는 유연함이 필연적입니다. 특히 건설업 변화의 불확실성과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와 공감 가는 칼럼이었습니다.

3등 기프트콘 2만 원 상당



임민아(대신2차푸르지오현장 이봉석 과장)
'Theme vision'을 보며 모든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에서 대우건설의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김미주(기술본부선2팀 김영훈 선임연구원)
저는 머리, 마음, 관계를 말랑하게 바꾸는 3색 말랑법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으면서 평소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한 경험을 떠올리며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또, 후배를 대하는 선배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재미있었습니다.

기술기획팀 김지민 사원
'Theme talk' 부분 중 '나를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cnc.com
02-2288-3297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브리즈 제습기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3등—3명 기프트콘 2만 원 상당

<조문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사업 단계 중
기본계획부터
이전고시에 관한
법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책
”

국내법무1팀 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 법무부서에 서 10여 년 재직하며 건설분쟁의 다양한 분야인 일 반시행사업,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관공 동사업, 공공발주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을 경험하고 있다. 건설분쟁 해결과 자문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중에서 도 도시정비사업 분쟁은 특히 어려운 분야로 손꼽힌 다. 도시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의 이해가 필요하고, 정 비사업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 은 경우가 많다. 저자는 관련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쟁점별 해당 법령,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법조실무가들의 견해 등의 상당한 자료를 접했다. 저자는 업무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찾고 법조문별 로 분류하며, 법조문의 이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인 내용(법조문의 취지, 주요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해 둘 필요성을 느껴 직접 책을 쓰게 됐다. 도시정비법에 이해가 깊은 법률전문가보다는 도시 정비법을 처음 접하는 법률전문가, 행정청 담당자, 건설회사 사업부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조합 관계자들을 돕기 위한 책이다.